

서울지회 동부출장소 개소식 가져



안전협회 서울지회(강태주 사무국장)는 동부출장소를 신설하고 지난 3월 30일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안전협회 이흥지 회장을 비롯해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 김석철 소장, 최석곤 산업안전과장, 최병규 감독관 등 외부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 김석철 소장은 안전협회 서울지회 동부출장소의 새출발을 축하하며, 우리나라는 물론 동북아 전역, 더 나아가 세계 전역에서 찾는 안전협회가 되길 기원한다고 축하 인사를 나눴고, 이에 안전협회 이흥지 회장은 모두의 성원과 격려 속에서 발전하는 안전협회가 됨을 감사드리며, 보다 나은 환경에서 더욱 매진하며 발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충북지회 충주사무소 이전 현판식

충북지회(윤철상 사무국장) 충주출장소는 충주시 봉방동에서 칠금동으로 새로운 보급자리를 마련하고, 지난 4월 16일 조출한 이전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에는 이흥지 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직원과 한이환 충북지회장(원일교통 대표이사), 박주정 충주지방노동사무소장이 자리를 함께 하였고, 회원 20여명도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한편 현판식에 이어 고사식에서는 충주 지역 산업현장의 안녕과 무재해를 기원하고, 충북지회 충주출장소의 발전을 기원하였다. 아울러, 충북지회 충주출장소는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바탕으로 한 지역 산업사회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각오다.

Safety News



기관 합동 산업재해예방가두 캠페인 가져



성남지회(이선호 사무국장)는 지난 4월 21일 노동부 성남지방노동사무소(이상진 소장)를 비롯해 산업안전공단 수원지도원,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과 합동으로 성남 지역의 안전문화 정착을 통한 산업재해예방을 홍보하는 가두 캠페인을 가졌다.

기관 합동으로 실시된 이번 캠페인은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을 비롯해 선택시티 아파트형 공장과 SK아파트형 공장 앞거리에서 이루어졌으며, 아침 출근하는 근로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한편, 산업안전관련기관의 합동으로 전개된 이날 캠페인이 지역 근로자들의 호의적인 반응속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사고없는 안전한 성남지역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계몽운동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아(주)안전관계자 근골격계 질환예방 교육 실시

창원지회(김철석 사무국장)에서는 금년 6월 30일까지 근골격계부담작업에서의 유해요인 조사실시와 관련하여 위아(주)의 안전·보건관계자 및 관리감독자, 노동조합 간부 등 33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2일부터 3일간 근골격계질환예방전문가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창원지방노동사무소 김경규 소장 등 근골격계 질환 관련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였는데, 위아(주)에서는 이번 전문가 교육이 근골격계 질환 예방 유해요인조사 및 예방관리를 노사 합동으로 자체적 운영·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부, 근골격계부담 작업흐름 개선비용 지원

노동부는 노사협의를 의해 근골격계부담작업 환경을 자발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장에 대해 소요비용의 50% 이내, 최대 3,000만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50~300인 미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중량물 운반설비 등 근로자에게 부담을 주는 12개 품목의 작업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무상으로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으로 매년 근골격계질환자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일선 사업장의 자율적인 예방활동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지원대상은 이동식 대차 및 컨베이어 등 중량물 이동·적재설비, 에어발란스 및 빨판 등 중량물 운반용 보조기구, 중량물 운반설비, 높이 및 각도조절이 가능한 작업대 및 작업의자, 요통 및 근골격계질환자 발생공정의 자동화설비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12개 설비이다.

환경개선비용이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산재예방시설자금 용자를 통한 지원도 가능하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을 통해 주물·도금·피혁 및 염색업종은 최대 4,000만원, 기타업종은 최대 2,000만원까지 근골격계부담작업 환경개선자금을 무상 지원받을 수 있다.

Safety

국가기술자격 검정수수료 7월 인상

워드프로세서 등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볼 때 내는 수수료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7월부터 최고 7.7% 인상된다.

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수수료를 7월 1일 접수분부터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의 경우 기능사는 현재 6,500원에서 7,000원으로 7.7% 인상되고, 기술사는 4만원에서 4만2,000원, 기사사는 1만1,500원에서 1만2,000원, 기능장은 3만원에서 3만1,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한, 실기시험은 기술사가 5만원에서 5만1,000원으로 오르고, 기사와 기능장, 기능사는 현재 각각 1만3,000원, 1만2,000원, 1만원에서 500씩 인상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도 컴퓨터활용능력 실기의 경우 현재 9,3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200~700원 오른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2월 현행 수수료로 올린 뒤 그동안의 물가상승률과 시험 비용 변동액 등을 감안, 추가 인상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